

도시와 인문학

서울도시연구소 윤진호

도시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도시읽기(김명식, 스페이스타임)

도시(City)

장소의 집중으로 이루어진 인간 삶의 무대: 수렵인의 정착

도(都): 도성, 천자가 거주하는 궁성

시(市): 시장,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

city: civic, civitas, civilization

권력 + 시장

인구, 장소, 거래 그리고 도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도시의 구성요소

도시의 공간/장소는 크게 두 개의 종류, 공공의 공간/장소와 개인의 공간/장소로

공공의 공간/장소: 골목, 거리, 버스정류장, 공원, 광장

사적인 공간/장소: 집, 정원과 같은 공간들

도시의 세간: 가구(버스정류장, 광장의 벤치, 공원 속 운동 기구), 조명(가로등), 식물(가로수, 분재, 꽃)

도시의 시간

도시는 하나의 방이 모여 시작된 곳: 원시시대의 움집

시간의 흐름속에 축적된 거주자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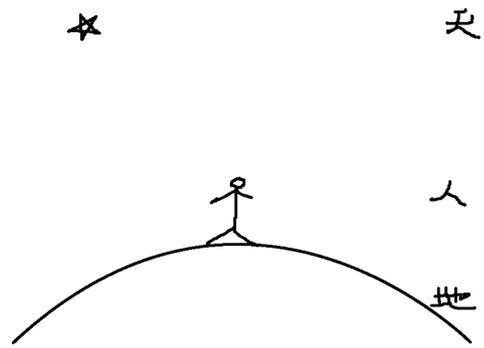
개인과 공동체의 관습, 문화, 전통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고 정체성을 형성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시의 구조, 형태, 역사 그리고 삶이 변화

장소 그리고 삶의 세계

장소는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

지구: 거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장소.
 현재까지 인간 삶을 위한 유일한 장소이고 공간
 몸, 몸 안, 몸 밖
 거주를 질을 향상시키는 작업



도시의 심상(이미지)

도시는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충돌하거나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삶의 세계
 아주 오래전부터 퇴적되어온 삶의 문양들이 고스란히 형태화되어 있는 도시
 건축이 이뤄낸 건물들: 주거, 업무, 가게, 식당, 교회, 성당, 학교, 구청, 동사무소
 공공 영역: 거리, 광장, 공원

도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

- 도시의 정체성: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특징
- 도시의 구조: 도시공간의 체계, 도시장소의 조직
- 도시의 의미

도시의 심상을 구체화하는 다섯 가지 요소

통로(거리, 은하), 경계(벽, 강, 해안, 철도), 지구(단지, 동, 구), 교점(광장), 랜드마크(마천루, 탑, 기념물)

도시의 분석

도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다섯 가지 준거

- 도시의 가지는 시간의 배경(역사): 정책, 경제의 성장 혹은 하락, 종교의 유입과 변화, 전쟁, 기념비로 남게 되는 사건 등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 도시의 형태 외적 요인들을 조사
- 물리적인 도시성장의 형태(발전): 역사의 틀 속에서 변모 혹은 변형되어 발전해 온 도시의 구조와 형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 건물 및 인구분포와 밀집(밀도): 건물 밀집의 정도, 인구밀도, 종교나 인종에 따른 거주지역과 종교시설의 분포, 주거, 업무, 산업지역과 같은 기능에 의해 나누어진 도시지역의 분포
- 사람과 탈 것 그리고 물품의 흐름(유동성): 교통수단의 발전 뿐 아니라 양의 증가

- 이전 계획의 결과와 제시되고 있는 계획들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통한 새로운 시각(발전 가능성의 담론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 이태수 교수 인터뷰에서(조선일보 14.10.25) -

고전을 공부하는 게 인문학이다.

우리 삶을 떠나서 인문학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 인문학은 동서양 고전을 다 공부해야 한다.

플라톤의 대화에서 보듯이, 남과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다듬는다. 그게 다이얼로그 이고 인문학이다.

사실 앞으로 더 필요한 게, 천명 이천명 모아놓고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저녁 때 모여서 책 한 구절 놓고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삶을 의미있게 꾸미려는 것은 인문학에 대한 필요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수요가 이벤트성 강연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는 걸로 가지 말고 동네 도서관에 사람이 얼마나 오고, 조그만 독서 모임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전국에 많이 생기느냐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지금부터 지능에서 중요한 것은 남이 못 본 것을 연결시키거나 없던 것을 상상해내는 능력이다.

정책적으로 신경써야 할 것은 일본 어느 현에서 삼국유사 읽는 것 같은 풀뿌리 모임이다.

인문학은 스타 강사 강연에 수천명이 모이는 빅 이벤트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인문학을 읽고 입을 열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한다. 꾸준히 조금씩.

인문학은 사실 인식을 목표로 해서 성립된 학문은 아니다. 사실 인식은 과학의 고유한 임무다. 과학과는 달리 인문학은 인식된 사실의 의미 연관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인식된 내용을 인간의 삶과 연결시켜 거기에 부여된 기왕의 의미를 캐내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면서 그것들을 좋음, 나쁨, 옳음, 그름의 가치평가가 이루는 격자망 안에 엮어 넣는 것이 인문학이 하는 일이다.

인문학은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 미리부터 답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인문학이다.

도시와 철학

사상가들 도시와 문명을 말하다(고일홍 외, 한길사)

Philosophy and the city(edited by Sharon M. Meagher, SUNY)

도시는 문명의 요람이자 삶의 공간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사상가들의 도시와 문명에 대한 사유를 그들의 저술을 통해 읽어 본다.

도시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그리는 데 도움을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이해사회학 개요』

도시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다. 이 모든 정의에서 공통된 것은 다음 한 가지뿐이다. 즉 도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하나의 '부락'이며, 단지 여러 개의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주택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의 부락, 다시 말해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거지를 이루며 집들이 촘촘히 잇달아 있는 거주 지역에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웃 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주민 상호간의 지인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도시라고 부르기 위해 갖추어야만 할 또 하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전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상품이 교환되는 곳, 즉 시장이 소득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고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방식으로 거주 지역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도시는 시장이 있는 지역이다. 다시 말해 도시는 거주 지역의

중심에 지역시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생산의 경제적 전문화로 인해 그 도시의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공산품이나 상품 또는 이 양자 모두를 그 시장에서 얻는 곳을 말한다. 물론 도시인들 자신도 경제활동을 위한 특수한 생산품이나 소비물품을 바로 그곳의 시장에서 서로 거래하는 곳이어야 한다.



독일, 뇌르들링겐 중세 도시

플라톤 『국가』

박종현, 서광사 번역본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나라(polis)가 생기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일세. 아니면 자네는 나라를 수립시키는 기원으로 서 다른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위로 해서, 즉 한 사람이 한 가지 필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고, 또 다른 필요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맞아 들이는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에게겐 많은 것이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이 동반자 및 협력자들로서 한 거주지에 모이게 되었고, 이 ‘공동 생활체’에다 우리가 ‘나라’(도시 국가:polis)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네. 안 그런가?”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필요 중에서도 첫째이며 가장 중대한 것은 생존을 위한 음식물의 마련일세” “그리고 둘째의 것은 주거의 마련일 것이며, 셋째 것은 의복 및 그와 같은 유의 것들의 마련일세”

“그럼 다음은 어떤가? 어떤 이가 일을 더 잘 해내게 되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기술에 종사할 때인가, 아니면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에 종사할 때인가?”

“이로 미루어 볼진대, 각각의 것이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성향에 따라’ 적기에 하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한가로이 대할 때에 있어서 이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는 이병길, 박영사 번역본 참조

모든 도시국가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다. 누구나 자신이 좋게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만사를 행하니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가 어떤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특히 모든 공동체 중에서 으뜸가고 다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공동체가 모든 좋은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좋은 것을 추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른바 도시국가, 즉 정치적 공동체이다.

일상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적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가족인데, 그 구성원들을 카론다스는 ‘식구(찬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라고 부르고, 크레타의 에피메네스는 ‘한술밥 먹는 사람들(여물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단지 일상적인 욕구 충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러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진 최초의 공동체가 마을(촌락)이다. 가장 자연스럽게는 마을이 한 가구의 식민지 이민을 통해 형성된다.(촌락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는 동일가족으로부터 나온 취락이며 ‘같은 짓’을 먹은 자식과 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리하여 몇 개의 촌락이 제법 자급자족할 수 있으리만큼 큰 단일적이며 완성된 생활 공동체로 결성될 때 국가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는 일상생활의 단순한 필수품을 충족시키려는 데서 출발하여 선한 생활을 위하여 그 존재를 계속 유지한다)

자족성은 목적이자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로부터 도시국가는 자연적 산물이고,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게오르그 지멜 『대도시와 정신적 삶』

대도시인의 특성이 세워진 심리적 기반은 감정적 생활의 격화인데, 이는 외적·내적 자극들이 급속히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 기인한다. 인간은 차이를 본질로 하는 존재이다. 즉 인간의 의식은 그때그때의 인상이 이에 선행하는 인상과 구분되는 차이에 의해 촉발된다. 우리의 의식은 인상들이 고정된 경우, 또는 그 차이가 미미하거나 대립적인 인상이라고 할지라도 규칙적이고 익숙한 흐름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보다는, 이미지가 급속히 교체되면서 밀려오거나,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포착되는 변화가 급격하

거나, 밀려드는 인상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경우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조건들은 대도시의 거리를 걸을 때나, 빠르고 다양한 경제적·직업적·사회적 삶을 경험할 때 발생한다. 정신적 삶의 감각적 기반, 다시 말해 차이에 입각한 우리 존재의 속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식의 총량을 비교해보면, 대도시는 소도시나 시골의 삶과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후자에서는 감각적·정신적 생활의 리듬이 더 느리고, 더 익숙하고, 더 평탄하게 진행된다.

여기에서 대도시의 정신적 삶이 어떻게 해서 기분이나 정서적 관계에 더 의존하는 소도시적 삶에 비해 특별히 지적 성격을 띠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소도시의 정서적 관계들이 정신의 보다 무의식적인 층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가장 잘 발현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별적 경우마다 수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전형적인 대도시는 외부 환경의 흐름이나 모순들에 의해서 삶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방어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대도시인은 그러한 외부 환경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적 반응을 보인다. 동일한 원인의 결과로 의식이 고양되면 지성이 정신적 우선권을 지니게 된다. 개인의 주체적 삶을 대도시의 억압적 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러한 이성적 태도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여러 개별적 현상들과 얽혀 나타난다. 순수하게 이성적인 사람은 개별적인 모든 것에 대해 냉담하다.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관계는 모두 그들의 개별성에 기초하는 반면에, 이성적 관계는 사람들을 숫자로 취급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업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그 자체로는 무관한 요소들처럼 다룬다. 대도시인들이 배달원, 고객, 사환 또는 외부적 인간관계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개체성을 알게 되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풍부한 감정이 묻어나게 되는 소규모 집단의 경우와 다르다.

경제심리학의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박한 사회에서는 생산이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을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와 고객이 서로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의 대도시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시장을 위한 생산, 즉 생산자가 보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고객을 위한 생산이 지배한다. 이 경우에는 고객과 생산자 양측의 이해관계가 몰인정한 객관성을 띠게 되고, 이성적 계산에 입각한 경제적 이기주의는 예측할 수 없는 개인적 관계 때문에 동요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조형준, 세물결 번역본

도시는 오직 걸음으로만 동질적으로 보일 뿐이다. 심지어 도시의 이름조차 구역에 따라 다른 울림을 갖는다. 아마 꿈속을 뺀다면 도시에서만큼 경계라는 현상을 본래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도 따로 없을 것이다. 어떤 도시를 안다는 것은 철도의 교차로를 따라, 집들을 가로질러, 공원 안과 강변을 따라 달리며 경계선으로 기능하는 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 경계와 더불어 다양한 구역의 외진 곳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계들은 문턱처럼 가로들을 가로질러 달린다. 마치 허공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마치 어딘가 전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새로운 구역이 시작된다. [C 3.3]

마르틴 하이데거 『건축·거주·사유』

건축함은 단지 거주함에 이르는 수단과 길에 불과하지 않다. 건축함은 그 자체가 이미 거주함이다. ...그런데 건축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축하다를 뜻하는 고대 독일어인 “buan”은 거주함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머물러 있음, 체류해 있음을 의미한다. 건축하다라는 동사의 본래적 의미는 거주하다이나, 이 의미는 우리에게 상실되었다.

“나는 있다(ich bin)” 혹은 “너는 있다(du bist)”라는 것은 나는 거주한다 혹은 너는 거주한다를 의미한다.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그 양식, 즉 우리 인간이 지상에, 즉 이 땅 위에 있는 그 방식은 Buan, 즉 거주함이다. 고대어 bauen은 인간은 그가 거주하는 한에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돌본다(hegen), 보호한다(pflegen), 즉 밭을 갈다 혹은 포도를 재배한다 등을 의미한다.

우리는 건축을 해왔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거주하는 한에서만, 즉 거주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한에서만, 건축을 하며 또한 건축을 해왔던 것이다.

본래적인 보살핌이란 긍정적인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떤 것을 처음부터 그것의 본질 안에 그대로 놓아둘 때,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오로지 그것의 본질안으로 되돌려 놓아 간직할 때, 즉 우리가 자유롭게 함이라는 낱말에 상응해서 그것을 울타리로 둘러쌀 때 일어난다. ... 거주함의 근본 특성은 이러한 보살핌이다.

거주함의 전 범위가 우리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것은, 인간존재는 거주함에 바탕을 두고 있고 보다 정확히 말해서 이 땅 위에 죽을 자들로서 체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거주함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사유하고 있을 때이다. 하지만 “이 땅 위에서”란 이미 “하늘 아래”를 의미한다. 이 양자는 “신적인 것들 앞에 머물러 있음”을 더불어 의미하며, “인간이 서로 상호 간에 귀속해 있음”을 포함한다. 근원적인 통일성으로부터 넷이, 즉 땅과 하늘,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이 하나로 귀속한다.

넷의 하나로 포개짐을 우리는 사방(das Geviert)이라고 명명하다. 죽을 자들은 거주하고 있기에 사방 안에 존재한다. ... 땅을 구원하는 가운데, 하늘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신적인 것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죽을 자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거주함은 사방의 사중적인 보살핌으로서 스스로 생긴다.

거주함은 사방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사방을 소중히 보살핀다. 그러나 사물들은 그것들 자신이 사물들로서 그것들의 본질 안에 초연히 내맡겨질 때에만 사방을 간직한다.



어느 정도로 건축함은 거주함에 속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건축함이 거주함의 본질로부터 사유될 경우 건축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준다.

다리는 강, 강가 그리고 토지를 서로 이웃이게끔 엮어준다. 다리는 강 주변의 풍경으로서의 땅을 결집하며 모아들인다. ... 다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땅과 하늘 그리고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을 자기 곁에 결집하며 모아들인다.

다리는 물론 고유한 양식의 사물(thing)이다. 왜냐하면 다리는 사방에게 하나의 터전(‘터전’이란 사방세계가 사물 안에 결집되어 펼쳐지는, 존재의 열린자리)을 허락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방을 결집하며 모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그 스스로가 장소인 그런 것만이 하나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 물론 다리가 서 있기 전에 강을 따라 여러 위치들이 존재하는데, 이 위치들은 어떤 것을 통해 점유될 수 있다. 그 위치들 중 하나가 장소로서 밝혀지는데, 이는 물론 다리를 통해서이다. ... 다리는 사물이며, 사방을 결집하며 모아들인다. 이러한 터전으로부터 자리(Platz)들과 길(Weg)들이 규정되면, 이것들을 통해 공간(Raum)이 마련된다. ... 공간이란 본질적으로 마련된 곳(어떤 것을

위해 치워져 자유롭게 마련된 곳), 즉 자신의 경계 속으로 들여보내진 곳(허락되고 허용된 곳)이다. 마련된 곳은 하나의 장소를 통해, 즉 다리라는 양식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을 통해 그때그때마다 마련되고 접합, 즉 결집된다. 따라서 각 공간들은 자신들의 본질을 장소로부터 수용하는 것이지, “저” 공간으로부터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물들을 산출하는 활동이 건축함이다. 건축함의 본질은 이러한 사물들의 양식에 상응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물들은 공간들을 허락하는 장소들이다. 건축함은 (인간이 체류할) 장소들을 건립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공간들을 수립하고 접합하는 활동이다.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

‘공론장’이란 여론이 형성되는 우리의 사회생활 영역을 의미한다. 공론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공론장은 개인들이 모여 공중을 이루어 행하는 모든 대화에서 형성된다. 이 경우 사람들은 사업가나 직업인으로서 자신들의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의 법적 일원으로서 국가 관료기구의 적법한 규정에 예속되거나 복종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강요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일반적 관심사를 논의할 때 시민들의 공중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루이스 멀퍼드 『역사 속의 도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면, 인간 삶을 훼손하는 과도하고 비정한 힘들을 통제하고 다루고 조직해서 인간의 생물적 기능과 문화적 목적에 복속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유기적 기준과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에너지와 극심한 활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다.

우리가 지구의 거주성을 회복하고 인간 영혼의 비어있는 공간을 계발하려면, 쓸데없이 도피주의에 빠져 태양계 우주공간 탐사에 몰입하거나 대대적인 집단절멸전략에 기반한 훨씬 더 비인간적인 책략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 지구로 돌아와 각종의 유기적 비옥함·다양성·창조성으로 가득한 삶을 직면할 때까지, 탈역사적 인간의 편협한 세계로 도피할 때가 아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존재를 위협하는 힘들을 통제하려면, 현대인은 먼저 제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 이것이 미래 도시의 최우선 과제다. 즉 인간을 제 자신의 더 깊은 자아와 더 큰 세계에 친숙하도록 디자인된, 또한 인간의 보살핌과 사랑의 이미지와 결부된, 지역과 도시의 가시적 구조를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도시를 일차적으로 사업과 통치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성, 즉 '한 세계의 인간(One World Man)'의 인간성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데에 본질적인 기관으로 봐야 한다. 인간 대 자연, 도시인 대 농촌인, 그리스인 대 야만인, 시민 대 외국인의 낡은 구분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다. 지구 전체가 소통을 위해 지구촌이 되고 있다. 그 결과, 가장 작은 동네와 지역도 더 큰 세계의 작동모형으로서 계획되어야 한다. 이제 도시에 구현해야 할 것은 단일하고 신격화된 통치자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 지식·자기통치·자기실현을 목표 삼는 시민들의 개인적·공동적 의지다. 시민활동의 중심은 산업 대신 교육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과정과 기능은 인간발전을 심화하는 한에서 평가되고 승인될 것이며, 도시는 자발적 만남과 도전을 위한 활기찬 극장을 제공하고 일상 삶을 껴안게 된다.

역사 속의 도시가 맡아온 지고한 임무는 감성적 교감, 합리적 소통, 기술적 숙련, 무엇보다 극적 재현을 통해 삶의 모든 차원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찰스 몽고메리, 미디어월)

도시가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신념
도시 자체가 행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경기침체기에도 도시생활의 형태와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
도시의 공공 공간에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공공영역이 민영화된 도시는 불공정했다.
거리를 걷은 즐거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는 즐거움, 얘기하는 즐거움,
풀밭과 물, 낙엽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즐거움, 거리에서 자유롭게 노는 즐거움
예산을 자전거 도로, 공원, 보행광장, 도서관, 학교, 보육소 건설에 투입했다.
도시는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수단. 도시는 시민들의 자아가 표출된 형태.
도시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변할 수 있다.

○ 행복도시의 정의

도시는 부를 창출하는 엔진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인간 행복을 증진하는 사회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한다.

도시가 식량, 주거, 안전이라는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난 다음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

- 도시는 기쁨을 최대화하고 곤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형태와 시스템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 도시는 시민을 병들게 하기보다 시민을 건강하게 해야 한다.
- 도시는 시민이 원하는 대로 삶을 개척하고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 도시는 경제적 충격이나 환경적 충격에서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도시는 공정한 방식으로 공간, 서비스, 이동성, 기쁨, 곤경, 비용을 배분해야 한다.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표로, 도시는 모든 사람이 친구, 가족, 낯선 사람과 인생에 의미가 있는 유대를 맺고,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유대는 도시의 가장 큰 성과이자 도시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다.

시민들이 공유하는 운명을 인식하고 축하하는 도시, 공감과 협동의 문을 여는 도시가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들에 대처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고민할 과제는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도시형태와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가이다.